

입법조사처, “금융전산망 보안체계 근본 전환 필요”

기사입력 2011-06-24 10:54 기사수정 2011-06-24 10:54

[뷰티] 할리우드 스타 브리트니의 몸매 관리 비결은?

- 주사 한방으로 허벅지와 팔뚝살등 원하는 부위 쏙~

최근 농협 등 금융 전산망 보안 사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적극 나섰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한나라당 이성현 의원실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CR센터와 공동으로 27일 국회에서 ‘기술중립성과 시장혁신-금융보안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발생한 농협 및 현대캐피탈의 전산망 보안침해 사건들은 과거와는 달리 전문적이면서도 치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무한 확장만 거듭해 온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 전산망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입법조사처 측은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입법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해 전자금융 전산망 보안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세현 카이스트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금융보안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주제아래 정보보호 역사의 고찰을 통해 각 시기별 쟁점을 살펴보고 현재의 변화된 정보보안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기업운영에 있어 경영자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전환 시급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경호 시큐베이스 사장은 ‘금융보안 및 관련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수 보안인력 확보방안, 보안업무 조직 개편, 보안업무 계약체계 개선, 개인정보처리 책임자의 책무, 개인정보보호법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금융보안 문제의 해결방향 및 정책제언’ 주제발표에서 ▲미국, 일본 등의 인터넷 뱅킹 현황과 우리나라의 상황 비교 설명 ▲보안성 평가제도(CC)의 일원화 ▲OTP+서명(인증서) 기술개발 ▲독자 암호기술 사용의 타당성 검토 방안 등을 집중 설명한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회
저작권관리사
신청하기

투데이 포커스



기상천외한 ‘탈옥’..
가방에 숨어



레이디가가 양파패션,
충격적인 변신

· 캐나다 식인공, ‘70대 노인 잡아먹어’

· 대형마트 ‘뭍음 상품’이 더 싸다고?

· 임혁필 사촌, 해병 총기난사 사고로 사망

· 강화 해병부대서 총기난사..4명 사망

· 허영보리드라...의...